

『嶠南賓興錄』의 판본과 御考 科賦 試券에 대한 小考*

金紀燁**

目 次

1. 서론
2. 판본 현황과 구성
3. 御考 科賦 試券과 批點
4. 결론

| 국문초록 |

『賓興錄』은 正祖代에 설행된 지방 별시의 전말을 기록하고 입격한 試券을 수록한 자료이다. 6종의 『빈흥록』 중 『嶠南賓興錄』에는 정조의 御考를 거친 영남 儒生의 우수 科賦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批點이 판각된 판본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남빈흥록』의 판종을 살피고 御考 批點을 토대로 優等 試券에 나타난 정조의 科賦 평가 기준을 살폈다.

『교남빈흥록』은 권2 「御考優等試券」까지 수록된 판본과 여기에 「陶山試士壇碑銘」·「賴村致祭時日記」를 追刻하여 부록으로 넣은 판본이 있다. 부록이 추가된 판본과 1792년에 판각된 판본은 구성뿐만 아니라 批點의 형태도 차이를 보인다. 우등 시권에서 批點의 위치는 구절의 2·3·5 字마다 찍혀 있으나, 특정 글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句 자체에 매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732)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교남빈흥록』의 『御考優等試券』에는 姜世白·金熙洛·金象九·曹深이 작성한 科賦 4편이 실려 있다. 네 사람 모두 30句로 구성된 科賦를 지었으며, 각 句의 4번째 자마다 虛辭를 넣어 6言 科賦의 형식을 준수하였다. 典故 또한 거의 모든 구마다 인용되었는데 三上의 성적을 얻은 姜世白·金熙洛의 시권에는 試題와 동일한 출처의 전고가 빈번하게 쓰였다. 三中의 성적을 얻은 金象九·曹深은 말미에 4言의 亂辭를 넣어 姜世白·金熙洛의 답안과 형식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亂辭 부분에서 정조의 批點을 전혀 획득하지 못하였다. 4언 亂辭의 활용으로 인해 조선 후기 科賦가 요구하는 6언의 規式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批點을 통해 정조 또한 科賦에 亂辭의 출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핵심어 賓興錄, 試券, 科舉, 賦, 正祖, 批點.

1. 서론

『賓興錄』은 정조대에 설행된 지방 별시의 전말을 기록하고 입격한 試券을 수록한 자료이다. 賓興은 빈객으로 예우하여 천거한다는 뜻이며 鄉試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周나라 때 鄉大夫가 小學에서 賢能한 인재를 천거할 때 그들을 鄉飲酒禮에서 빈객으로 예우하며 太學에 올려 보낸 데에서 유래한다.¹⁾

정조는 周나라 때의 賓興法을 근거로 지방 유생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賓興을 수차례 실시하였고,²⁾ 그 결과로 1792년 영남 유생의 應製 試券이 수록된 『嶠南賓興錄』, 1793년 강원 유생의 시권이 수록된 『關東賓

1) 『周禮』 「地官·大司徒」. “鄉學의 三物(3종류의 교법)을 가지고 만민을 교화하는데, 인재를 빈객으로 예우하여 천거한다.[以鄉三物教萬民而賓興之]”

2) 심경호(2016).

興錄』, 1794년 제주 유생의 시권이 수록된 『耽羅賓興錄』, 1795년 함흥과 영흥 지역 유생의 시권이 수록된 『豐沛賓興錄』, 1800년 함경 유생의 시권이 수록된 『關北賓興錄』과 평안 유생의 시권이 수록된 『關西賓興錄』 등 6종의 빈흥록이 간행되었다.³⁾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6종의 빈흥록 중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간행된 『교남빈흥록』은 1791년에 간행된 『瓊林文喜錄』의 범례를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그동안 정조의 영남·강원 유생 선발 정책에 주목한 『교남빈흥록』과 『관동빈흥록』 선행 연구를 통해, 정조가 지방의 학풍을 진작시키고 소외된 지방 유생을 선발하기 위해 賓興錄類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

빈흥록에 관한 연구는 『교남빈흥록』과 『관동빈흥록』을 대상으로 정조의 지방 유생 선발 방식과 절차, 간행 및 배포 현황, 입격자의 등용과 賓興科 체제 관리 등을 살핌으로써, 정조의 인식과 정책적 의도 및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⁶⁾ 科擧에 부과된 문체와 試題에는 당대 국가가 인재에게 요구하는 현실 감각을 문학 및 학문의 내용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념과 논리가 담겨 있으며,⁷⁾ 최근 정조대의 科

3) 『정조실록』 권1, 「정조대왕행장」. “온 나라 전체가 모두 賓興 대상이 되어 신해년(1791)에는 『경림문회록』이 만들어지고 임자년(1792)에는 『교남빈흥록』, 계축년(1793)에는 『관동빈흥록』, 갑인년(1794)에는 『탐라빈흥록』, 을묘년(1795)에는 『풍패빈흥록』과 『정시문정』, 경신년(1800)에는 『관북·관서빈흥록』이 있게 되었다.[爰及八方, 莫不賓興, 辛亥有『瓊林聞喜錄』, 壬子有『嶠南賓興錄』, 癸丑有『關東賓興錄』, 甲寅有『耽羅賓興錄』, 乙卯有『豐沛賓興錄』, 『正始文程』, 庚申有『關北關西賓興錄』.]” 본 연구에서 지방 유생이 아닌 초계문신, 성균관 유생, 음관의 응제 답안을 수록한 『瓊林文喜錄』과 『正始文程』은 빈흥록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關北賓興錄』에 수록된 傳敎에 따르면 정조는 1797년 관북 지방 유생에게 시험을 설행할 것을 명하였다.

4) 박선이(2018), 447쪽.

5) 김다미(2017), 47~51쪽; 김다미(2019), 158~164쪽; 김문식(2001), 450쪽; 김문식(2016), 79쪽.

6) 김다미(2017); 김다미(2019); 김문식(2001); 김문식(2016).

試 연구는 문체나 답안 자료를 문헌학적으로 고찰하는 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다.⁸⁾

『교남빈홍록』에는 정조의 御考를 거친 영남 유생의 우수 科賦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批點이 판각된 판본과 붓으로 찍힌 판본이 존재한다. 이 批點의 판각 여부에 따라 『교남빈홍록』의 편집과 구성에도 차이를 보인다.⁹⁾ 또 御考 批點에는 정조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優等 科賦의 批點을 통해 정조의 考課 기준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교남빈홍록』 판본 2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권의 批點과 내용에 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남빈홍록』의 판본 현황을 살펴 批點이 판각된 판본의 구성과 간행 경위를 검토한다. 또한 御考 批點이 찍힌 우등 試券의 내용과 형식을 살핌으로써 정조의 科賦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2. 판본 현황과 구성

1792년(정조16) 3월 3일에 정조는 李晩秀(1752~1820)를 파견하여 3월 19일 옥산서원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24일에는 陶山書院에 致祭하게 한 뒤, 御題 2통을 내려 치제하는 날 참가한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道臣에게 지시하여 傳敎, 祭文, 閣臣과 差備官의 座目, 入格榜目,

7) 심경호(2020), 61쪽. 과거제도를 전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도 연혁과 합격자 등용 등 시행 세칙을 검토하는 이외에, 부과 문제 및 제목을 검토하고 수험 공구서·수험 참고서 등 편찬물의 유통을 조사하여 학술 경향과 문화적 역량, 학술 논쟁의 역사와 학술 방법의 변화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삼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8) 김광년(2020), 129~159쪽; 박현순(2016), 147~189쪽; 윤선영(2016), 35~77쪽.

9) 『교남빈홍록』은 「傳敎」·「御製祭文」·「書啓」·「儒生應製榜」·「御考優等試券」으로 구성된 간본이 있고, 후대에 「陶山試士壇碑銘」과 「傾村致祭時日記」가 추가된 간본이 보인다. 후대에 추가된 간본에는 批點이 판각되어 있다.

入門한 인원과 시권을 제출한 사람의 수효, 우수 시권 4편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은 『瓊林聞喜錄』의 범례를 따라 책으로 간행하고, 그 冊板은 陶山에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교남빈흥록』이다.¹⁰⁾

『교남빈흥록』 권1에는 첫머리에는 1792년 3월 3일과 4월 5일에 내린 「傳敎」가 2편 실려 있으며, 이어서 李晩秀가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서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한 정조의 제문(「御製祭文」)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만수는 3월 24일 도산서원에서 致祭 후 25일에 도산별시를 설행하여 영남 유생들을 試取한 경과를 26일 書啓에 적었으며, 4월 4일에는 서울에서 도산별시의 전반적 상황을 서계로 작성하여 올렸다.

『교남빈흥록』 권2에는 「儒生應製榜」과 「御考優等試券」이 실려 있다. 『교남빈흥록』은 권2 「御考優等試券」까지 엮인 판본(규장각본[奎11423]·안동권씨 정남문고)과, 여기에 「陶山試士壇碑銘」을 비롯하여 부록 「領村致祭時日記」 권1(日記·「舉案」·「西征記行二百韻」)이 추가로 실려 있는 판본(국중본[BA3643-212]·장서각본[PB15FB-6])이 발견된다. 권2의 「御考優等試券」까지 편집된 판본(규장각본·안동권씨 정남문고)에는 간기가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부록에 「西征記行二百韻」까지 편집된 판본(국중본·장서각본)은 말미의 간기를 통해 대정11년(1922) 이항의 사손 李忠鎬(1872~1951)가 편집하여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正祖, 『弘齋全書』卷184, 「群書標記·嶠南賓興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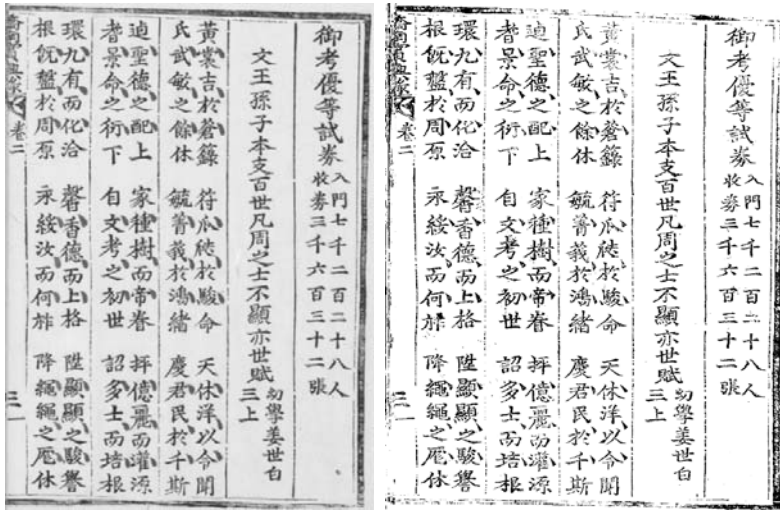
<표 1> 판본별 구성의 차이

규장각본[奎11423]				국립중앙도서관본[BA3643-212] ¹¹⁾			
卷首題	구성	張次	版心題 (花口)	卷首題	구성	張次	版心題 (花口)
嶠南 賓興錄 卷之一	傳教	1a~2b	嶠南 賓興錄	嶠南 賓興錄 卷之一	傳教	1a~2b	嶠南 賓興錄
	御製祭文	2b~3a			御製祭文	2b~3a	
	書啓	3b~6a			書啓	3b~6a	
嶠南 賓興錄 卷之二	儒生應製榜	1a~2b		嶠南 賓興錄 卷之二	儒生應製榜	1a~2b	
	御考優等試券	3a~7b			御考優等試券	3a~7b	
					陶山試士壇碑銘	1a~2b	
				附嶠村致 祭時日記 卷之一	日記	1a~9b	嶠 村 日 記
					舉案	10a~25a	
					西征記行二百韻	25a~30a	

부록이 추가된 판본은 『嶠南賓興錄』 卷之二의 卷尾題 이후로 「陶山試士壇碑銘」과 「嶠村致祭時日記」 권1이 수록되어 있다. 「陶山試士壇碑銘」부터 花文魚尾가 없어졌다가 「嶠村致祭時日記」 권1의 3a부터 花文魚尾가 다시 나타난다. 花口の 版心題는 「陶山試士壇碑銘」까지 ‘嶠南賓興錄’으로 되어 있고 「嶠村致祭時日記」 권1부터는 ‘嶠村日記’로 새겨져 있다. 「陶山試士壇碑銘」은 영남 문인으로서 정조대 영의정을 지낸 蔡濟恭이 썼으며, 부록 「嶠村致祭時日記」 권1에 보이는 작가들도 대부분이 영남 지역의 문인이다.

『교남빈흥록』은 『경림빈흥록』과 합철된 판본들도 있다. 이 합철본의 『교남빈흥록』 구성은 규장각본[奎11423]과 마찬가지로 권2 「御考優等試券」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시권에 나타나 있는 批點 또한 글자에 일부 간섭이 보이고 끝이 각지지 않아, 부록이 추가된 판본들의 批點과 형태적 차이를 보인다.¹²⁾

11) 장서각본[PB15FB-6]과 국중본[BA3643-212]은 동일한 판본으로 인출된 것이지만, 장서각본은 「陶山試士壇碑銘」과 「附嶠村致祭時日記」 사이에 낙장이 보인다.

[그림 1] 批點이 찍힌 판본과 판각된 판본¹³⁾

[그림 1]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의 권2 『御考優等試券』까지는 界線의 濃淡이나 단절된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책판으로 인출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두 계열의 판본에 보이는 批點 판각의 차이는 모각할 때 새겼거나, 해당 부분만을 파내고 이에 맞추어 다시 새겨 넣는 象嵌을 거친 결과로 추측된다.¹⁴⁾

우등 시권에서 批點의 위치는 구절의 2·3·5 字마다 朱墨으로 찍혀 있다. 강세백의 시권을 예로 들면 첫 구절 “黃裳吉於蒼籙 氏武敏之餘休”은 안쪽의 裳·吉·蒼에 批點이 찍혔고 바깥쪽에는 武·敏·餘에 찍혀

12) 『경림문회록』과 합철된 판본으로는 규장각 소장본[奎62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C古朝26-1]과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본[COR-I.340] 1책이 있다. 이 합철본들의 『교남빈흥록』 우등 시권에는 批點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주묵으로 찍혀 있다.

13) 규장각 소장[奎11423](좌), 장서각 소장[PB15FB-6](우).

14) 象嵌은 흔히 목판에서 글자의 오류를 바로잡을 때 쓰인다. 批點을 새겨 넣기 위해서 번거로운 상감 작업을 거쳤을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 가능성만 제시한다.

있다. 이하 구절과 수록된 다른 시권들도 모두 동일한 위치의 글자에 批點이 찍혀 있으나, 批點은 특정 글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당 구 자체가 훌륭하여 批點이 매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批點이 판각된 『교남빈흥록』 권2 冊板(상)과 확대 부분(하, 3a)

[그림 2]는 도산서원에 보관하였다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책판으로 批點이 책판 자체에 새겨져 있다. 批點이 판각된 책판으로 찍어낸 판본은 기존 책판에다 「陶山試士壇碑銘」·부록 권1 「頼村致祭時日記」·「舉案」·「西征記行二百韻」의 책판이 뒤섞인 混板이라는 점에서 규장각본과 서지적 차이를 보인다.

규장각본과 같이 권2 「御考優等試券」까지의 책판은 1792년에 판각한 것이며, 그 뒤로 실려 있는 「陶山試士壇碑銘」·부록 권1 「頼村致祭時日記」(日記·「舉案」·「西征記行二百韻」)는 후대에 追刻한 책판으로 보인다. 책판 판각의 시기적 차이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첫째, 「陶山試士壇碑銘」부터 花口에는 ‘嶠南賓興錄’이라고 새겨져 있지만 판심에는 上二葉花紋魚尾가 나타나지 않고 자형이 크게 달라진다. 둘째, 「頼村致祭時日記」 권1부터 花口에 ‘頼村日記’가 새겨져 있는데, 이 頼村日記는 1796년 성균관에서 李滉을 치제했을 때의 내용이므로, 정조가 도산별시의 전말을 기록하여 시권과 함께 인출하라고 명했던 1792년과 시기가 어긋난다. 다만 試士壇碑銘에서 사라졌던 上二葉花紋魚尾가 「頼村致祭時日記」 3a부터 다시 나타난 것은 1792년에 판각한 책판을 본뜬 듯하다.

곧 「陶山試士壇碑銘」·부록 권1 「頼村致祭時日記」가 수록된 판본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追刻한 책판으로 찍어 낸 것이며, 이충호에 의해 1922년 도산서원에서 재편집·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御考優等試券」 책판과 「頼村致祭時日記」 책판이 판각된 시기적 차이는 책판 마모도를 비롯한 책판 고정 도구를 통해서도 입증된다.¹⁵⁾

15) 권1·2 책판의 마모 정도가 부록 책판보다 심한 것으로 보아, 권1·2가 부록에 비해 인출이 많았으며 부록은 권1·2보다 늦게 판각되어 인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부록의 「頼村致祭時日記」 책판들은 마구리를 고정하는 데에 조선 못이 아닌 ‘왜못’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부록 책판의 追刻 시기를 일제 강점기로 추정하는데, 이는 간기의 大正11년(1922)과도 부합된다.(한국국학진흥원 간역 정보 참고)

『교남빈홍록』은 정조의 영남 유생에 대한 정책의 결과로 만들어진 책판이었지만, 도산서원으로 옮겨진 뒤로 『御考優等試券』 책판에 批點이 새겨지고 당대에 관련된 사실 기록을 追刻한 판본이 나타났다. 批點이 판각된 책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조의 평가가 반영된 『御考優等試券』이 영남 지역에서 꾸준히 간행되었으며, 과거를 준비하는 영남 유생들의 수험 공구서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御考 科賦 試券과 批點

科擧에서 賦는 『經國大典』부터 詩·銘·箴과 함께 소과 제술 擧子的基本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續大典』에서 銘·箴이 폐지된 것과 달리, 賦는 詩와 함께 식년 진사 초·복시, 증광 진사 초·복시를 비롯하여 陞補試·四學合製·公都會 제술 등 대부분의 소과 초시의 성격을 지닌 과거 단계에서 정규 고시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대과 식년·증광, 각종 별시의 초·복시 등에도 고시 과목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제술 과장에서 시험을 보였던 문체이다.

賦에 대한 科擧 규정은 빈홍록이 편찬된 정조 연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고종대의 『大典會通』에서는 賦의 격식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⁶⁾ 科擧의 주요 과목임을 반영하듯, 經義 위주의 시권이 수록된 『關西賓興錄』을 제외하고 모든 빈홍록류에 賦가 실려 있다.

16) 『經國大典』『禮典·諸科』에 進士 初試는 “賦一篇, 古詩·銘·箴中一篇.”으로 되어 있고, 『續大典』『禮典·諸科』에서는 “賦一篇, 古詩·銘·箴中一篇. 續【賦一篇, 古詩一篇. 銘·箴, 今廢.】”라고 되어 있다. 『大典會通』『禮典·諸科』에는 격식이 보완되어 “賦에서 30구를 못 채우거나, 시에서 17~18구를 못 채운 자는 뽑지 않는다.[賦不滿三十句, 詩不滿十七八句者, 勿取.]”라고 하였다.

批點은 문장을 비평할 때 아주 잘된 곳에 찍는 점을 말하며 대개 朱墨을 이용한다. 정조가 지방 유생의 시권에 손수 批點을 매긴 것은 도산별시를 치르기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다.¹⁷⁾ 다만 정조대에 편찬된 6종의 빈흥록 중 우등 시권에 대한 정조의 批點은 『교남빈흥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교남빈흥록』에서 정조의 御考 批點이 표시된 科賦 試券은 『御考優等試券』으로 구성되어 있다. 『御考優等試券』首題의 小注에 과장에 들어선 이가 7,328人이며 거둔 시권은 3,632張이라 적혀 있어 당시 科場의 성대함을 짐작케 한다. 致祭文을 지어 내렸던 정조는 御題로 賦1, 經義1을 내리고, 유생 각자가 잘 짓는 과목으로 응제하도록 하였다.¹⁸⁾ 그후 李晚秀가 復命하면서 두 문제의 답안 수천여 권을 바치자 정조는 친히 성적을 매겨 13명을 뽑았다.¹⁹⁾ 賦에서는 三上을 맞은 姜世白·金熙洛을 비롯한 29인이, 義에서는 草三下로 趙沐洙 1인이 입격하였으며, 이들은 정조로부터 상을 받고 시권을 일일이 받았다.²⁰⁾

17) 『正祖實錄』 권29, 1790년(정조14) 3월 6일 기사. “판도의 유생들에게 應製를 명하여 次上 이상의 989명을 뽑았다. 하교하기를 ‘시골 선비들에게 泮製를 특별히 시험 보이는 일은 학문을 권장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試券을 내가 손수 批點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은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命八道儒生應製, 取次上以上九百八十九人. 教曰: ‘鄉儒之別試泮製, 出於勸獎之意, 而試券手批在渠, 可謂特恩……’]”

18) 蔡濟恭, 『樊巖集』 卷57, 『陶山試士壇碑銘』. “祭文, 上所親製. 又下御題賦一經義一, 命祭罷, 坐典教堂, 招諸生入進道門內, 俾各以其長應製.”

19) 正祖, 『弘齋全書』 卷184, 『嶠南實興錄二卷』. “翌月, 晚秀復命, 進兩體累千餘券, 親考取十三人.”

20) 『日省錄』, 1792년(정조16) 4월 4일. “賦에서 三上을 맞은 幼學 강세백과 생원 김희락은 모두 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三中을 맞은 진사 金象九, 유학 曹深에게는 각각 2分씩을 주고, 三下를 맞은 유학 趙居信, 진사 郭璿·權馨復, 생원 權思浩·李泰淳, 유학 金馨進·南漢朝에게는 각각 1분씩을 주고, 草三下를 맞은 유학 李鼎儼 등 18인과 義에서 초삼하를 맞은 從仕郎 趙沐洙에게는 각각 종이 5卷, 붓 5枝, 먹 3笏씩을 사급하라. 그리고 입격한 사람들을 본도의 감영에 불러다가 음악을 연주하고 후하게 대접하며, 시권을 일일이 나누어 주라.[賦三上幼學姜世白

<표 2> 『교남빈홍록』에 수록된 입격자 정보²¹⁾

문체	이름	신분	생년	점수	인원
賦	○姜世白	幼學	戊辰	三上	2
	○金熙洛	生員	辛巳		
	○金象九	進士	辛亥	三中	2
	○曹深	幼學	癸未		
	趙居信	幼學	己巳	三下	7
	郭璿	進士	丁巳		
	權馨復	進士	丁卯		
	權思浩	生員	癸丑		
	李泰淳	生員	己卯		
	金馨進	幼學	辛酉		
	南漢朝	幼學	甲子	草三下	18
	李鼎儼	幼學	乙亥		
	李儒行	幼學	癸酉		
	金光鍊	幼學	丁未		
	金洛善	幼學	甲子		
	李寅炯	生員	甲辰		
	李(土+憲)	生員	乙亥		
	金璫	幼學	癸未		
	丁協祖	進士	甲寅		
	蔡著崇	進士	癸丑		
	李奎鎮	生員	癸未		
	曹義明	幼學	癸未		
	閔祖榮	生員	癸未		
	鄭必讓	幼學	丁亥		
	黃最源	幼學	己未		
	鄭璞	進士	甲寅		
	朴漢翼	幼學	壬戌		

· 生員金熙洛, 竝直赴殿試, 三中進士金象九·幼學曹深, 各給二分, 三下幼學趙居信·進士郭璿·權馨復·生員權思浩·李泰淳·幼學金馨進·南漢朝, 各給一分, 草三下幼學李鼎儼等十八人, 義草三下從仕郎趙沐洙, 各給紙五卷·筆五枝·墨三笏. 入格諸人招致木道監營, 設樂厚饋之, 試券一分給.]”

21) ○ 표시는 『교남빈홍록』에 시권이 수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李祥發	進士	乙卯		
	郭溟翰	幼學	庚寅		
義	趙沐洙	從仕郎	丙辰	三下	1
합계					30

『교남빈흥록』에는 우등 시권으로 姜世白·金熙洛·金象九·曹深이 작성한 科賦 4편이 실려 있다. 당시 영남 유생에게 내려진 御題는 “문왕의 자손들은 본손과 지손이 백대를 전할 것이며 모든 주나라의 선비들도 대대로 현양되지 않겠는가.[文王孫子本支百世凡周之士不顯亦世]”로, 『詩經』 「大雅·文王之什」에 나오는 구절이 인용되었다. 조선을 주나라에 비유하고 영남 유생을 주나라의 선비에 빗대어, 조선이 백세토록 무궁할 것이며 영남 유생들도 대대로 현양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御考優等試券』에 가장 먼저 수록된 응제 시권의 작자는 姜世白(1748~1824)으로, 그는 30句 중 26批點을 획득하여 金熙洛(17批點)·金象九(16批點)·曹深(15批點)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다. 여기서는 1위로 뽑힌 강세백의 시권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3인의 시권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살핀다.

(1) 姜世白의 御考優等試券

강세백의 자는 淸之, 호는 皓隣, 본관은 晉州, 출신지는 경상북도 尙州이다. 강세백은 도산별시에서 입격 후 直赴殿試의 혜택을 받았으며, 2년 뒤 1794년 2월 60세가 된 惠慶宮을 축하하는 慶試에서 丙科 34위(37/50)로 급제하였다. 관직은 假注書·事變假注書·持平·弘文館應敎 등을 역임하고, 낙향한 후에는 鄭宗魯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²²⁾ 아래 강세백의 답안 내용에 평측과 운목, 批點 여부를 나타내고, 鋪置 구분은 『科文規式』

22)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http://people.aks.ac.kr/index.aks>

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기하였다.²³⁾

句	번역	원문	韻目	鋪置	批點
1	혜경궁께서 국운을 상서롭게 하니, 姜源의 덕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평평측평평측 평측측평평평 黃裳吉於蒼籙 氏武敏之餘休	尤 (平)		○
2	대명에 부합하여 자손이 뻗어나가고, 대업을 위해 선비들을 길렀습니다.	평평측평측측 측평평평평측 符瓜瓞於駿命 毓菁莪於鴻緒	語 (上)		○
3	하늘의 복 넘쳐 아름다운 이름나고, 임금과 백성 넉넉함을 경하합니다.	평평평평측평 측평평평평평 天休洋溢令聞 慶君民於千斯	支 立 (平)	題	○
4	성덕이 하늘에 짝하기에 알맞고, 대명이 하민에 미쳐 기뻐합니다.	평측측평측측 평측측평측측 迨聖德之配上 耆景命之衍下	禡 破 (去)	題	○
5	나라가 자손을 기름에 상제가 돌보니, 선대 때부터 그리하였습니다.	평측측평측측 측평측평평측 家種樹而帝眷 自文考之初世	霽 鋪 (去)	頭	○
6	억만 자손에게 근원을 따르게 하고, 많은 선비 불러 근간을 단단히 합니다.	평측측평측평 측평측평측평 抔億麗而灌源 詔多士而培根	元 鋪 (平)	敍	○
7	온 천하에 교화가 두루 미치니, 그 근원은 주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평측측평측측 평측평평평평 環九有而化洽 根既盤於周原	元 初 (平)	項	○
8	향기로운 덕이 위로 미치니, 길이 편안한 것은 어떠한 복입니까.	평평측평평측 측평측평평측 馨香德而上格 永綏汝而何祚	遇 (去)		○
9	드러나고 드러난 큰 명예를 받으시고 계속 이어지는 큰 복이 내릴 것입니다.	평측측평측평 측평평평평평 陞顯顯之駿譽 降繩繩之厯休	尤 二 (平)	項	○
10	서백이 융성하자 자손들 빛나며, 고궁단보가 집터 잡자 찬란해졌습니다.	평평측측측평 측측평평평평 西豐苑以胤光 亶父家而輝輝	微 (平)		○
11	복이 소인에게도 미치게 하시니, 경사 어찌 자손 번성에 그치겠습니까.	평측평평측평 측평평평평평 休亦流於蠡茲 慶奚徒於螽斯	支 三 (平)	項	○
12	주나라에 복종하여 근본 탄탄하니 위아래로 의지하여 모두 기뻐합니다.	평평평평측측 평측측평평평 侯于周而本固 椅上下之同禧	支 (平)		○
13	현원의 스무 아들도 많지 않으며, 요임금의 아홉 아들 또한 적습니다.	평측측평측평 평측평측평측 軒卅子而不多 堯九男亦爲小	篠 回 (上)	項	○
14	유생들도 기대에 부응하리니, 아! 대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평평측측평평 평측측평평측 青衿亦其膺期 於不顯乎其世	霽 回 (去)	項	○
15	봉황 같은 자제를 울음소리 화락하고,	평평평평측평 측평평평평측	紙		○

23) 이상욱(2015), 111쪽. “第三句立題(押散韻) 第四句破題 第五句鋪頭 第六句鋪敍 第七句初項 第九句二項 第十一句三項 第十三句或十四句回題項 第二十句回題 回題下有三句 言回題餘意 其下論七句 合三十句成編 若編中不爲三項 則鋪敍初項二項下 皆增數句.”

	기린의 발꿈치에 인후한 공자 번성합니다.	鳴離離之鳳雛 襟振振之麟趾 (上)		
16	봄바람이 홀룩한 자제에 가득 미치고, 한 나무에 천 갈래 가지 뻗어 나갑니다.	평평측평측측 측측평평평평 支 (平)	x	
17	원손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리니, 임금이 그러하다면 신하 또한 그러합니다.	평측평평측평 평측평측평평 先 (平)	o	
18	떡갈나무 두릅나무 모두 무성해지고, 취당굴이 함께 푸르러 갑니다.	평측측평평측 평측측평평측 寅 (去)	o	
19	유업 계승하는 데에 걱정이 없을 것이며, 선대보다 더 크게 명성이 날 것입니다.	평평평평측측 측측평평측측 龔 (上)	o	
20	홀룩한 선조 덕에 걸출한 자손 많아지니, 임금과 신하가 크게 기뻐합니다.	평평평측측평 평평평평평평 支 回 (平)	o	題
21	뎛어주고 돕는 상서로운 징조 헤아리고, 아이 쉽게 낳는 큰 복 길이 생각합니다.	평측측평측평 측측측평평평 尤 回 (平)	o	下
22	수많은 선비들 길이 그리며, 홀룩한 선비를 밝게 이끌 것입니다.	평평평측측평 측평평평평평 豪 (平)	o	
23	성명한 시대를 열 큰 역사를 계승하고, 후손을 편안하게 할 계획이 빗납니다.	평평측평측측 측측평평측평 元 (平)	o	
24	왕통이 억만 년 번성하리니, 어찌 열 대에 그치고 말겠습니까.	평평측평측측 측측측평평평 虞 (平)	o	
25	주나라 팔백 년 기틀 이미 만들어졌으니, 천제일우의 운수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평측측평측측 측평측평평평 灰 (平)	o	
26	왕업 흥기할 봉황의 지극한 덕으로, 정도에 맞는 큰 교화 펼칠 것입니다.	평측평평측측 측평평평평측 禡 (去)	x	
27	참으로 집안을 화순하게 하였으므로, 경사가 온 천지에 넘쳐납니다.	측측평평측평 평평측평평측 龔 (上)	o	
28	상제가 큰 복을 내릴 것이니, 백세토록 자손이 이어질 것입니다.	평측측평측측 측측측측측평 虞 (平)	x	
29	선대의 밝은 덕을 계승하고, 후대에게 복을 열어줄 것입니다.	측평측평평측 측측평평평평 尤 (平)	x	
30	우리 지역 또한 성인이 나신 곳이니, 경사가 천년토록 넘칠 것입니다.	평평측측측측 측평측평평측 紙 (上)	o	

科賦 작성 규칙은 30句 이상이 되어야 하며 중간에 어조사를 1자씩 넣어 6언으로 이루어진 구법을 만들어야 했다. 당대에는 이 規式이 더러 지켜지지 않아 이를 폐단으로 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²⁴⁾ 위 강

세백의 시권은 정조의 御考를 거친 우등 시권답게 각 句마다 앞 3자와 뒤 2자로 나누고 4번째 자에 之・於・以・而・亦・乎 등의 허사를 넣어 6언을 만들어²⁵⁾ 정형화되어 가는 조선 후기 科賦의 형식을 준수하였다. 다만, 제6구와 7구, 제11구와 12구에만 압운을 하였고 나머지는 압운하지 않았으며, 평측에도 일정한 격례를 보이지 않는다.

賦의 초반부는 주어진 試題의 배경을 밝히게 되는데, 1구와 2구는 주나라 문왕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주나라 선비들 또한 대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試題 내용을 각 구에 나누어 표현하였다. 1구의 蒼籙은 木德으로 天命을 받은 주나라의 曆數라는 뜻으로 주나라의 역사나 국운을 말한다. 왕후를 상징하는 黃裳과 『주역』 「坤卦」를 인용하여 정조를 낳은 혜경궁 홍씨를 빗대었다. 이와 對를 이루는 바깥쪽에서는 『시경』 「大雅・生民」의 武畝를 인용하여 주나라 시조 后稷을 낳은 姜源으로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복을 표현하였다.

3구 入題를 거쳐 4구 破題로 들어가면 주어진 試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밝히게 되는데, 4구의 안쪽은 『시경』 「大雅・文王之什」에서 “그 덕이 능히 하늘의 상제에게 짝하였다.[克配上帝]”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주나라 문왕을 정조에 빗대고 주나라의 신하를 큰 명을 받은 영남의 유생에 빗대어, 천명을 받은 정조의 덕으로 자손들이 번성하고 조선의 훌륭한 선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문제의 속뜻을 핵심적으로 밝혔다.

鋪頭와 鋪敘는 작가 강세백이 화자로서, 시제에 밝혀진 상황을 진전시켜 서술하는 부분이 이어진다. 5구의 鋪頭는 『서경』 「康誥」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선친인 文王의 언행을 공경히 따라야 한다.[今民將在祗遜乃文考]”의 文考를 인용하여 선대 문왕의 덕을 칭송하였고, 6구의 포서는 賢能한 선비들이 근간을 굳건히 이루는 장면을 서술하였다. 7구의 初項은

24) 황위주(2014), 31~36쪽.

25) 이병혁(1998), 202쪽.

주나라에서 비롯된 복을 조선이 이어받아 교화를 펼침을 표현하고 二項과 三項에서 西伯·古公亶父의 고사를 들어 성군의 덕이 베풀어진 교화의 효용을 중점으로 피력하였다.

『시경』『大雅·文王之什』에서 “상나라의 손자가, 그 수가 억뿐이 아니지마는, 상제가 이미 명한지라, 주나라에 복종하였도다.[商之孫子 其麗不億 上帝既命 侯于周服]”는 구절을 인용하여, 교화로 인한 효용과 복은 자손이 번성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감화되어 귀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三項을 매듭지었다가, 13구와 14구의 回項에서 다시 문왕의 자손 번성과 신하들이 대대로 드러나리라는 주제를 환기시켰다.

13구와 14구는 『科文規式』에서 말한 回項에 해당한다. 다만 13구에서 軒轅의 아들이 25명이었다는 고사와 堯 임금의 아들이 9인이라는 고사에 착안하여 두 임금보다 우리 임금의 자손이 더 번성하기를 기원하였으며, 14구에서는 ‘於不顯乎其世’라고 하여 자손 번성과 신하가 대대로 드러나리라는 試題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하 15구부터 20구까지 離離(『시경』『大雅·卷阿』),²⁶⁾ 振振(『시경』『麟趾』),²⁷⁾ 彌月(『시경』『大雅·生民』),²⁸⁾ 柞棫(『시경』『綿』),²⁹⁾ 葛藟(『시경』『周南·樛木』),³⁰⁾ 幹蠱,³¹⁾

26) “봉황새가 우네, 저 높은 언덕에서, 오동나무 자라났네, 해 뜨는 저 동산에서. 오동나무 무성하니, 봉황새 소리 어울리네.[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 華萼萋萋 離離喈喈]”에서 인용하여 화려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왕이 성인이 된 所以를 읊은 『시경』『大雅·思齊』의 “온화하게 궁중에 계시며, 경건하게 사당에 계시네.[離離在宮 肅肅在廟]”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7) 여기서 “기린의 발꿈치에, 진진한 공자이다.[麟之趾 振振公子]”라고 하였는데, 이는 周나라 文王의 성덕으로 기린 같은 짐승도 발꿈치로 풀과 벌레도 밟지 않는 仁德이 있으므로 그 자손인 公子들은 다 어질고 부드럽고 후중하여 신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읊은 시이다. 『麟趾』는 문왕과 后妃의 교화가 미쳐 자손이 인후하고 번창함을 노래한 것이다.

28) 17구의 彌月은 產月이 왔다는 말로, 元孫의 탄생을 가리키는데, 『詩經』『大雅·生民』에 “아기 낳으실 달이 모두 차자, 첫아기를 양처럼 쉽게 낳았다.[誕彌厥月 先生如達]”는 말이 나온다.

29) 柞棫은 떡갈나무와 두릅나무를 말한다. 周나라 太王이 도읍을 정하려 처음 岐山

遙有聲(『시경』「文王有聲」)³²⁾ 등 대부분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여 자손과 나라가 번창하고 선대의 왕업을 잘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형식상 回題로 되어 있는 제20구 아래의 21구와 22구도 『시경』「大雅·生民」에 “아기 낳으실 달이 모두 차자, 첫아기를 양처럼 쉽게 낳았다.[誕彌厥月 先生如達]”와 『시경』「大雅·文王」에 “대대로 전한 덕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 계책에 힘쓰는구나. 많은 훌륭한 선비가 이 왕국에 태어났네. 왕국이 길러 내니 주나라의 기둥이로다. 많고 많은 선비여, 문왕이 이들 때문에 편안하시다.[世之不顯 厥猶翼翼 思皇多士 生此王國 王國克生 維周之禎 濟濟多士 文王以寧]”라고 한 내용을 인용하여, 제목에서 제시된 자손의 번창과 훌륭한 신하가 드러난다는 발화를 구체화된 문구로 표현해 내었다. 回下에 해당하는 이후 句들의 짜임 역시, 주어진 제목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성대한 왕업, 많은 자손과 훌륭한 신하의 협조 등에 관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강세백의 시권은 16구·26구·28구·29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批點을 획득하였다. 이 批點들은 특정 글자에 찍힌 것이 아니라, 의미나 표

아래에 갔을 때에는 숲이 깊어 막혀 있고 인구가 적었는데 뒤에 인구가 점점 번성해지고 귀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떡갈나무와 두릅나무 사이에 길이 났다고 한다.

- 30) 『시경』「周南·樛木」에 “아래로 늘어진 남산의 나뭇가지, 칙덩굴이 의지하고 얹혀 있구나.[南有樛木 葛藟纍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나뭇가지는 文王의 후비를 가리키고, 칙덩굴은 후궁들을 가리킨다. 후비가妬忌를 하지 않고 미천한 후궁들에게 두루 은혜를 베풀자, 후궁들이 그 덕에 감복하여 이렇게 노래했다고 한다.
- 31) 幹蠱는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여 아버지가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蠱卦·初六」에 “초육은 아버지의 일을 주관함이니, 자식이 있으면 돌아간 아버지가 허물이 없게 된다.[初六 幹父之蠱 有子 考无咎]”라고 하였다.
- 32) 『시경』「文王有聲」에 “문왕이 명성이 났는데, 대대적으로 명성이 났네.[文王有聲 遙駿有聲]”라고 하였다. 이는 정조의 명성이 文王의 명성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이다.

현이 高遠하거나 정밀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句 전체에 批點을 찍고, 뜻이 모호하거나 공교롭지 못한 곳은 구 전체에 批點을 찍지 않은 것이다. 비점을 받지 못한 일부 구를 예로 들면 16구에서 덕 있는 이의 교화를 뜻하는 春風이나 준수한 자제를 일컫는 寶樹는 모두 전고가 있는 표현이지만 다른 구에 나타난 用事와 기교에 비하면 평면적으로 보인다. 또 28구의 蚌珠는 늙은 조개 속에 있는 진주로, 만년에 훌륭한 아들을 낳은 것을 비유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없지 않다. 試題에서 요구하는 뜻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되므로 批點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2) 金熙洛의 御考優等試券

『御考優等試券』에는 강세백의 시권에 이어 같은 제목[同題]으로 金熙洛(1761~1803)의 시권이 수록되어 있다. 김희락의 자는 淑明, 호는 故寔軒, 본관은 의성이다. 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도산별시에서 강세백과 함께 直赴殿試의 혜택을 받았다. 1794년에는 규장각 講製文臣으로 뽑혔고 이후로 1800년까지 三曹의 郎官과 사헌부 지평·사간원 정언을 역임하였다.³³⁾ 그는 시문집 『故寔』에서 『교남빈흥록』과 관련한 정조의 전교를 인용하고 자신이 외람되어 발탁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³⁴⁾ 『홍재전서』에는 김희락이 정조의 聯句 응제에 참여하여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어³⁵⁾ 초계문신으로서 총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3)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http://people.aks.ac.kr/index.aks>

34) 金熙洛, 『故寔』, 『敬書嶠南寶興錄傳教後』. “傳曰: 鄒魯之鄉, 能守吾道, 曠感於先正, 視嘉於多士, 特設試取於陶山致祭之日者, 意豈泛然?……臣熙洛, 猥以菲材特蒙跋擢, 弗勝惶縮, 拜手稽首, 謹識.”

35) 正祖, 『弘齋全書』, 『永興本宮躋享日聯句』. “三呼雷動歡加額, 八彩春融喜動眉. 【臣熙洛】”

<표 3> 金熙洛 試券의 批點, 운목, 전고

句	원문	운목	전고	鋪置	批點
1	原有瓜兮岵嶽 映泰和而同春	眞(平)	『詩經』「大雅·綿」		○
2	追金相於在天 頌瑋璋於裕昆	元(平)	『書經』「仲虺之誥」		○
3	文有孫兮亦文 豈不顯於臣庶	御(去)	『詩經』「大雅·文王」	立題	○
4	旣公姓之振振 故多士之濟濟	薺(上)	『詩經』「周南·麟趾」 『詩經』「大雅·文王」	破題	○
5	曰文謨其克篤 蓋同德於君臣	眞(平)	『書經』「周書·君牙」 『書經』「周書·武成」	鋪頭	○
6	參鴻化於上載 逌駿祥於邦幹	寒(平)	-	鋪敘	○
7	昭光洽於贊揚 爛穆穆兮不已	紙(上)	『詩經』「大雅·文王」	初項	○
8	登清廟而永唏 溯當世之洪休	尤(平)	『詩經』「周頌·清廟」		○
9	天維昭於降嘏 化更深於膺命	敬(去)	-	二項	○
10	邦雖舊而乃新 先得昌於侯王	陽(平)	『詩經』「大雅·文王」		×
11	歌螽羽而則百 頌騶德而於萬	願(去)	『詩經』「周南·螽斯」	三項	○
12	羌本支兮分世世 臺令聞兮垂昆	元(平)	『詩經』「大雅·文王」		○
13	神孫旣以燕翼 又孰能無冥佑	有(上)	『詩經』「文王有誡」	回項	○
14	鳶魚久於作人 生此國於群髦	豪(平)	『詩經』「大雅·旱麓」		○
15	煒宗璜而面稽 捧瑟瓊而身趨	虞(平)	『詩經』「大雅·旱麓」		×
16	彙征吉於臧朝 式穀似兮克家	麻(平)	『周易』「泰卦·初九」 『詩經』「小宛」		×
17	參上下而咏和 倚嗣續之丕顯	銑(上)	『書經』「周書·君牙」		×
18	吾宗子而克繼 彼臣服而彌遠	阮(上)	-		○
19	豐流長以玉派 爛一堂之靈胄	宥(去)	-		×
20	伊聖德之不孤 更臣隣之同化	禡(去)	『書經』「虞書·益稷」	回題	○
21	朱紘洋以寶籙 基億萬之邦家	麻(平)	『禮記』「樂記」	回下	○
22	生堯世而亦幸 奏夔樂而餘響	養(上)	『書經』「虞書·舜典」		×
23	風雲會於百世 天乃錫以靈緒	語(上)	『周易』「乾卦·文言」		×
24	斯周家之爲盛 詎臣二之無助	御(去)	-		○
25	誦其詩而知世 想文后之鴻德	職(入)	-		×
26	治旣洽於作成 命自眷於保佑	有(上)	『詩經』「大雅·假樂」		×
27	而靈牒之遙進 不獨在於王家	麻(平)	-		×
28	羌在上而穆穆 綺布下而繼繼	霽(去)	『詩經』「大雅·文王」		×
29	神功讚於匹休 吹拜造而齊美	紙(上)	『書經』「洛誥」		×
30	臣拜手而獻賦 仰璇題而遐守	有(上)	-		×

강세백과 같은 三上의 성적을 받은 김희락도 매 구의 4번째 글자에 허사를 넣어 6언으로 만들고, 총 30구로 답안을 구성하여 科賦의 규칙을 준수하였다. 30구 중 17개의 구에서 御考 批點을 받아, 앞서 26개의 구에서 批點을 받았던 강세백의 시권에 비해 批點을 많이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답안은 주나라의 창엽과 종실 자손들이 번성함을 노래하고 많은 어진 신하들이 조력한다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주어진 시제와 부합한다. 강세백·김희락 시권에 활용된 전고를 보면 모두 『시경』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는 御題의 출처가 『詩經』 「大雅·文王之什」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희락의 시권에서 「大雅」를 인용하였음에도 批點을 받지 못한 구절이 있고, 반대로 전고 활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구절에도 批點을 획득한 경우가 있어, 전고 활용이 批點 획득으로 직결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3) 金象九와 曹深 試券의 御考 批點

『嶠南賓興錄』 권2 「御考優等試券」에는 三上을 받은 강세백·김희락 시권에 이어, 三中을 받은 金象九(1731~1802)와 曹深(1763~?)의 시권이 순서대로 실려 있다. 여기서는 金象九와 曹深의 시권 비점을 중심으로 살펴 三上和 三中の 考課 기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金象九는 李象靖·朴孫慶에게 수학하였으며, 1763년(영조39)에 증광시에서 진사 2등 18위(23/100)로 입격한 바 있다. 도산별시에 환갑이 넘은 고령으로 응시하였으며, 그가 지은 科賦는 『御考優等試券』에 3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李漢膺(1778~1864)이 쓴 그의 묘갈명에는 정조의 어고를 거쳐 장원으로 뽑혔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낙제하였다고 되어 있다.³⁶⁾

36) 李漢膺, 『敬菴集』 卷10, 「上舍金公墓碣銘」. “公諱象九, 字享天……間遊大山南野兩先生之門, 與門下諸公多所講討焉. 壬子陶山之試士也, 御考擢公置壯元, 而因大臣言, 竟落第. 上爲之歎惜, 命道臣刊賓興錄, 又令招致頒賞.”

<표 4> 金象九・曹深 試券의 御考 批點 비교

進士 金象九 三中				幼學 曹深 三中		
句	원문	운목	批點	원문	운목	批點
1	帝以周爲克肖 春在上而臨下	禡(去)	○	誦螽餘而譽髦 仰聖德於垂裕	遇(去)	×
2	宜齊家於螽羽 嘉作人於鳶魚	魚(平)	○	春綿瓜而幾葉 蔭喬木於千禩	紙(上)	×
3	天其子而又孫 亦百世於思皇	陽(平)	○	承承地而翼翼 拜稽首曰於戲	寘(去)	○
4	欽純德之士(配) 頌丕慶之攸同	東(平)	○	旣祚胤之永錫 與國家而同休	尤(平)	○
5	公及見其盛德 以聖子而追述	質(入)	○	天於周而眷德 王在時而多士	紙(上)	×
6	承任化於教胎 感文治於寧國	職(入)	○	孚邦命於穆穆 苑國楨於濟濟	薺(上)	○
7	背負後而首稽 仰聖孫之臨土	紙(上)	○	靈臺高而以寧 臺令聞而於昭	蕭(平)	○
8	於昭儼其陟配 協景昃而申之	支(平)	○	餘馨升而克配 果厥錫之何如	魚(平)	○
9	岐梧萎而鳳聞 今我君之三世	霽(去)	○	金枝蔚於棫山 璿派長於豐流	尤(平)	○
10	於皇穆其覽德 顧謂文曰登岸	翰(去)	○	神承之而聖繼 爛百祿於宗支	支(平)	○
11	聖繼聖而承承 曷其世之不顯	銑(上)	○	觀盈庭之世祿 爾誰孫而誰子	紙(上)	○
12	爲天子而有孫 雖百代而宗支	支(平)	○	衣冠繩以拜冕 爵土永以分茅	肴(平)	×
13	君臣咸有一德 亦維楨於丕時	支(平)	○	青雲深於洛水 摠靈臣之餘裔	霽(去)	×
14	子及孫而祗承 臣哉隣哉同休	尤(平)	○	拚茲慶而耿顧 不亦遠乎遺祚	遇(去)	○
15	風雲滿於一堂 間都俞而冥佑	有(上) 有(去)	○	謨旣深於燕翼 化永流於鳶魚	魚(平)	○
16	宜維新於舊邦 豈有君而無臣	眞(平)	×	續陳錫之不替 一體同乎君臣	眞(平)	○

間遊大山南野兩先生之門，與門下諸公多所講討焉。壬子陶山之試士也。御考擢公置壯元，而因大臣言，竟落第，上爲之歎惜。

17	參令聞而秉文 眷克生而亦顯	銑(上)	×	男斯盛於則百 祿亦延於於萬	願(去)	○
18	伊繩繩與濟濟 君則百而士百	陌(入)	×	煙花繞於錦岐 緊百代之風雲	文(平)	×
19	文武後而本支 召陳亦其庶適	陌(入)	×	聲於是乎不墜 緒亦維其無忒	琰(上)	○
20	宜是君於是臣 與同慶於同德	寘(去) 職(入)	×	承天佑而世世 摠瑟瓚之遺音	侵(平)	○
21	清廟穆而秉德 助顯相而肅雝	冬(平)	×	儀麟趾之景福 護鳳鳴之餘休	尤(平)	×
22	寧無德而可致 於不顯乎其光	陽(平)	×	洋洋溢於上下 悅在天而申之	支(平)	○
23	今王宜其繼述 老臣亦其及覲	夔(上)	○	隨青春而冠冕 保蒼籙而明良	陽(平)	×
24	羌拜手而祗戒 曷不念於沖子	紙(上)	×	岡梧苑而毓英 煥有成於周楨	庚(平)	×
25	天可謨於有命 皇祖德以陳明	庚(平)	×	明堂闢而萬年 期共享乎天休	尤(平)	×
26	臣稽顙而陳辭 將未寄夫餘頌	宋(去)	×	如諄諄於有命 信昭昭乎受嘏	馬(上)	×
27	頌曰文王穆穆 其德百世	霽(去)	×	拚璇題而敬頌 我東亦其文謨	虞(平)	×
28	武王承承 代商光世	霽(去)	×	贊曰周同姓幾 世臣綿綿	先(平)	×
29	君臣同德 亦鞏其世	霽(去)	×	君乎伯乎 以萬以千	先(平)	×
30	於千萬年 不顯世世	霽(去)	×	繩繩者祿 緊誰之祉	紙(上)	×

金象九는 16批點, 曹深은 15批點을 얻어 三中의 성적을 얻었다. 앞서 강희백·김희락의 시권과 마찬가지로 모두 30구로 구성하였고, 亂辭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6언의 양식을 준수하였다.

4인의 시권은 전반부에서 批點을 고루 받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批點을 받지 못한 구절이 많이 나온다. 이와 같은 비점 획득 양상은 考課 과정에서 나타난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대개 시권이 고과를 위해 시권

을 선별하여 올릴 때는 수많은 시권을 주어진 시간 내에 꼼꼼히 살필 수 없으므로, 앞부분만 훑어보고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답안 작성자들도 시권 전반부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되고, 이런 이유로 回下 이후로는 비점 획득이 드물게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三上의 점수를 획득한 姜世白·金熙洛과 三中の 점수를 획득한 金象九·曹深의 시권에 보이는 형식적 차이는 말미의 ‘頌曰’ ‘贊曰’과 같은 亂辭의 삽입 여부이다. 姜世白·金熙洛은 마지막 구절까지 6언의 句로 답안을 구성하였으나, 金象九·曹深의 科賦는 4언의 亂辭를 넣음으로써 조선 후기에 고착화되어 가던 科賦의 6언 규칙에서 어긋나게 되었다. 金象九·曹深의 두 시권 모두 亂辭 부분에 御考 批點이 전혀 찍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조 역시 科賦에 亂辭의 출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결론

빈홍록류는 지역 응제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시의 간행 경위, 지역 특색에 맞춘 御題, 지방 유생의 문체별 우수 시권들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 『교남빈홍록』의 판종을 살피고, 御考 批點을 토대로 우수 科賦에 반영된 평가 기준을 살피고자 하였다.

『교남빈홍록』에는 「傳教」·「御製祭文」·「書啓」·「儒生應製榜」·「御考優等試券」으로 구성된 판본과 여기에 「陶山試士壇碑銘」과 부록 「頼村致祭時日記」가 추가된 판본이 있다. 2종의 판본에 수록된 우등 시권에는 모두 정조의 批點이 보이는데, 후대에 試士壇碑銘과 頼村日記가 추가된 간본에는 批點이 새겨진 책판이 존재한다.

『교남빈홍록』에는 정조의 批點을 받은 우등 시권으로 姜世白·金熙洛·金象九·曹深이 작성한 科賦 4편이 실려 있다. 批點들은 특정 글자

에 찍힌 것이 아니라 의미나 표현이 高遠하거나 정밀하면 해당 句 전체에 批點을 받았다. 네 사람 모두 30句로 구성된 科賦를 지었으며, 각 句는 4번째 자에 之·於·以·而·亦·乎 등의 허사를 넣고 6언을 만들어 조선 후기 정형화된 科賦의 형식을 준수하였다.

三上의 성적을 얻은 姜世白·金熙洛에 비해 三中의 성적을 얻은 金象九·曹深은 말미에 ‘頌曰’ ‘贊曰’과 같은 亂辭를 넣어 상대적으로 批點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 4언의 亂辭가 들어감으로써 조선 후기 科賦에서 요구하는 6언의 規式에서 어긋나게 되는데, 정조도 亂辭 부분에 批點을 전혀 찍지 않은 것으로 보아, 科賦에 亂辭의 출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6종의 빈흥록 중에 『교남빈흥록』과 『관동빈흥록』을 제외하고, 4종의 빈흥록은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추후에 연구가 되지 않은 나머지 빈흥록류를 대상으로, 御考 시권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 試題와 유생의 응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賦 외에 經義·詩·表·箋·頌·銘·論·策 등 빈흥록에 수록된 문체를 함께 다루어 보려 한다.

◆ 참고문헌

- 『關東賓興錄』 1·2책, 장서각 소장[K4-60](자료명에 『관북빈흥록』으로 등록되어 있음)
 『關北賓興錄』 單, 장서각 소장본[K4-61]
 『關西賓興錄』 1·2책, 장서각 소장본[K4-63]
 『嶠南賓興錄』, 규장각 소장본[奎11423]
 『嶠南賓興錄』, 도산서원 간행, 1922년(대정11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BA3643-212]
 『嶠南賓興錄』, 도산서원 간행, 1922년(대정11년), 장서각 소장본[PB15FB-6]
 『賓興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C古朝26-1](『경림문회록』, 『교남빈흥록』 합철)

- 『嶠南賓興錄』, 규장각 소장본.[奎6232](『경림문희록』, 『교남빈흥록』 합철)
 『賓興錄』, 1~3책(1책: 『경림문희록』 · 『교남빈흥록』 합철, 2책: 『관동빈흥록』, 3
 책: 『탐라빈흥록』 · 『정시문정』 · 『풍패빈흥록』 합철), 프랑스 동양언어
 문화학교 소장본.[COR-I.340]
 『耽羅賓興錄』, 규장각 소장본.[奎4792]
 『耽羅賓興錄』, 장서각 소장본.[K4-331]
 『豐沛賓興錄』, 규장각 소장본.[奎4677]
 『豐沛賓興錄』, 장서각 소장본.[K4-346]

- 강석중, 「科賦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 제39집, 대동한문학회, 2013.
 김광년,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臨軒功令』研究」, 『동양고전연구』 80집, 동
 양고전학회, 2020.
 김다미, 「正祖의 강원도 유생 선발과 『關東賓興錄』 편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_____, 「正祖의 강원도 유생 선발」, 『조선시대사학보』 91, 조선시대사학회, 2019.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김문식, 「『嶠南賓興錄』을 통해 본 정조의 대영남정책」, 『퇴계학보』 11권, 퇴계
 학연구원, 2001.
 _____, 「교남빈흥록,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도산별시의 기록」, 『안동학』 15집, 한
 국국학진흥원, 2016.
 박선이, 「『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연구』
 80권, 민족문화연구원, 2018.
 _____, 「정조의 『瓊林文喜錄』 편찬과 그 의의」, 『Journal of Korean Culture』 40권,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18.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호,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2016.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호, 진단학회, 2016.
 _____,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80집, 동양고전
 학회, 2020.
 윤선영, 「正祖代 四書疑 試題 小考」, 『태동고전연구』 제37집, 태동고전연구소,
 2016.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병혁, 『한국과문연구 -詩·賦를 중심으로-』, 『부산한문학연구』 제12집, 동양한문학회, 1998.

황위주, 『離騷遺香』을 통해 본 조선후기 '科賦'의 출제와 답안 양상, 『대동한문학』 40집, 대동한문학회, 2014.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 <http://kostma.korea.ac.kr>

국립중앙도서관 : <https://www.nl.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https://kyu.snu.ac.kr/>

디지털장서각 : <http://jsg.aks.ac.kr/>

승정원일기 : <http://sjw.history.go.kr/main.do>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 : <https://db.itkc.or.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 <https://www.nl.go.kr/korcis>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http://people.aks.ac.kr/index.aks>

투고일 2021. 4. 30 심사시작일 2021. 5. 20 게재확정일 2021. 6. 24

Abstract

Thoughts on the versions of Gyonam Binheungrok(嶠南賓興錄)
and eo-go(御考) gwabu(科賦) sigwon(試券)*

Kim, Gi-yeop

A binheungrok(賓興錄) is a book that contains details of local byulsi(a type of public officer test held for special occasions in Joseon Dynasty) held in Jeongjo era and the selected si-gwon(試券, answers). Among the six types of binheungrok, Gyonam Binheungrok(嶠南賓興錄) contains outstanding works of gwabu(科賦, rhymed pieces written for public officer exams) by yusaeng(儒生)s from the Yeong-nam region, that were directly reviewed by the king(eo-go, 御考). Unlike other binheungroks, bi-jeom(批點, marks left by the reviewer)s are engraved in some versions of Gyonam Binheungrok. This study reviews the versions of “Gyonam Binheungrok” and analyzes the evaluation criteria used by Jeongjo, based on the bi-jeoms he left on the selected answers.

There is a Gyonam Binheungrok(嶠南賓興錄) version that includes the second book titled “Eo-go-udengsigwon(御考優等試券, selected works reviewed by the king).” There is another version of “Gyonam Binheungrok(嶠南賓興錄)” that contains the additional appendix with the engraved “Dosansisadanbimyeong(陶山試士壇碑銘)” and banchonchijesilgi(頓村致祭時日記). Compared to the version that was made in the year 1792, the version with the appendix not only has a different structure, but also contains bi-jeoms with different shapes due to the engraving of the bi-jeoms. In the book of selected works, the bi-jeoms are left at the second, third, and fifth letters in certain phrases, but it is thought to have been left to indicate the phrase, not the lette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 A5C2A02082732)

The Eo-go-udengsigwon(御考優等試券) of Gyonam Binheungrok contains four gwabu(科賦)s written by Kang Se-baek(姜世白), Kim Hee-rak(金熙洛), Kim Sang-gu(金象九), and Jo Shim(曹深). Each wrote a gwabu(科賦) with 30 phrases. Each phrase contains heo-sa(虛辭, function word) as the fourth letter and consists of six words(6言), following the typical structure of gwabu(科賦). Almost every phrase contains jeon-go(典故, reference from the classics), and Kang Se-baek(姜世白) and Kim Hee-rak(金熙洛), who got sam-sang(三上) grade, quoted from the same reference that was used in the prompt. Kim Sang-gu(金象九) and Jo Shim(曹深), who got sam-jung(三中) grade, each added a four-word nan-sa(亂辭, a statement summarizing a big idea) at the end, which distinguishes the structure of their works from the works by Kang Se-baek(姜世白) and Kim Hee-rak(金熙洛). None of these nan-sa(亂辭)s won Jeongjo's bi-jeom. The utilization of nan-sa(亂辭) makes their work sway from the six-word(6言) format that was required in gwabu(科賦)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lack of bi-jeoms shows that Jeongjo didn't like nan-sa(亂辭)s in gwabu(科賦)s.

Keywords binheungrok(賓興錄), sigwon(試券), gwageo(科擧), bu(賦), Jeongjo(正祖), bi-jeom(批點).

